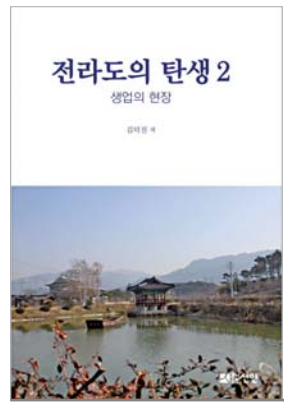


전라도는 어떤 터전서 어떤 생업으로 살아왔는가



전라도의 탄생 2

넓은 평야로 전국을 먹여 살렸던 전라도는 논농사를 주업으로 하며 도자기, 종이, 부채 등의 명품을 생산해 왔다. 공연 예술이 발달하고 어업과 향해의 달인도 많아 어업을 발달시켰다.

김덕진 광주교대 교수(사회과교육과)가 전라도의 생업의 역사를 정리한 '전라도의 탄생'을 펴냈다. 지난 2018년 발간한 '전라도의 탄생1-생활의 터전'에 이은 후속편이다.

1권에서 전라도의 형성·변화의 모습

김덕진 광주교대 교수, 전라도 생업의 역사 정리
“전라도 특산물 재발굴해 지역산업 동력으로 키워야”

을 소개한데 이어 2권에서는 고대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전라도는 어떤 터전 위에서 어떤 생업으로 생활해 왔는가를 정리했다.

김 교수는 “기존 전라도 역사 서술에 의해서는 전라도 역사를 체계적이고 올바르게 이해하기 힘들었다. 사건과 인물, 유물·유적이 중심으로 전라도 역사를 연구한 점이 그것인데, 어떤 구조와 토대 위에서 사건이 발생하고 인물이 활동하고 유물·유적이 탄생했는가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다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책은 4장으로 구성됐다. 1장에서는 전라도의 농업과 세금 및 저항 등 다섯가지가 수록되어 있다. 2장에서는 전라도의 특산물에 대해 알아봤다. 도자기 산업을 불러일으킨 차, 대나무로 만든 부채와 잠뭇, 출판문화를 선도한 종이, 전국적 점유율을 지닌 광물 등을 정리했다.



김덕진 교수

3장에서는 장시를 중심으로 한 전라도의 상업을, 4장에서는 전라도 사람들의 향해술과 어업에 대해 알아보았다. 김 교수는 “우리 지역 먹거리는 어떻게 형성됐고 어떻게 변화해 왔는, 우리 지역이 전국에서 독보적인 비중과 가치를 지녔던 것들이 지금에 와 상당수 흔적을 잃어가고 있는 점이 아쉽다”며 “전국적 명성을 얻었던 전라도 특산물 가운데 상당수가 20세기에 사라져버렸고, 그 존재감을 타지로 넘겨준 것도 적지 않다. 지금이라도 재발굴해 지역민의 자존심을 회복



고흥 오마도. 간척지 공사로 섬은 육지가 되어 있고, 갯벌은 넓은 농토로 변했다.(본문 내용 중)

하고 지역산업의 동력으로 키워야 한다는 취지로 책을 썼다”고 밝혔다.

저자는 전남대학교 사범대학 국사교육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광주교육대학교 사회과교육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전남남도 문화재전문위원, 전라도천년사 편찬위원, 광주교대 교육연구위원장을 맡고 있다.

저서로 ‘조선 후기 지방재정과 잡역세’, ‘연표로 보는 한국역사’, ‘조선 후기 경제사연구’, ‘소쇄원 사람들1·2’, ‘대기근, 조선을 뒤덮다’, ‘초등 역사교육의 이해’, ‘세상을 바꾼 기후’, ‘손에 잡히는 강진역사’, ‘전쟁과 전라도 지역사’ 등이 있다. 도서출판 선인. 394쪽. /이연수 기자

책 니웠어요

◇감나무위판단지 = 전쟁의 아픔과 가난의 서러움에도 불구하고그안엔인간의 끈끈한정교사랑을 통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교훈을 준다. 가문비어린이. 92쪽.

◇계간아시아제 56호 2020.봄 = '오리지널 스크롤' 두 번째 이야기. 한국의 오선희 소설가, 베트남의 마이 반편 시인의 특별강연이 준비됐으며, 국내에 소개된 적이 없던 기도 슈리와 온유주 작가의 시와 소설을 처음으로 실었다. 아시아 편집부. 272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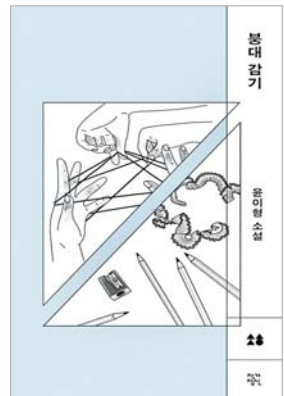
◇야구장 가는 날 = 뜨거운 열기가 가득한 야구장을 배경으로 가끔 다투기도 하지만 다정한 아빠와 그리이의 이야기를 통해 유쾌한 웃음을 선사하는 그림책. 길벗어린이. 44쪽.

◇일주일 만에 사랑할 순 없다 = 지구 멸망을 일주일 앞두고 사랑에 빠진 남녀의 로맨스와 생존 이야기를 표제작으로 카카오페이지 연재 당시 반응이 좋았던 작품들과 작가의 색다른 시도가 돋보이는 미공개 신작 등 23편의 단편을 모았다. 요다. 392쪽.

◇과학이 가르쳐준 것들 = 지금의 과학기술을 있게 한 과학적 사고와 태도, 과학이 가르쳐준 교훈을 실패, 질문, 모험심, 개방성, 공감, 겸손, 협력 등 17가지 개념으로 정리해 제시했다. 바틀비. 264쪽. /오지현 기자

서로의 상처에 붕대를 감아주는 일

이상문학상 반납하며 절필 선언한 윤이형 작
여성들간의 애증·연대 그린 마지막 단편소설



붕대감기

같아지겠다는 게 아니고 상처받을 준비가 됐다는 거야……. 다른 사람들이 아니고 너한테는, 나는 상처받고, 배울 준비가 됐다고! 네 생각이 어떤지 궁금하다고.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멀리서 고개를 끄덕이기만 하는 일을 제발 그만둬. < '붕대감기' 158쪽 중 일부 >

지난달 문학계가 발칵 뒤집혔다. '수상작 저작권을 3년간 양도하고 작가 개인 단편집에 실을 때 표제작으로 내세울 수 없다'는 이상문학상 주최 측 문학

사상사의 불공정한 요구에 반발해 후보에 오른 작가들이 일제히 수상을 거부한 것이다. 이에 지난해 '그들의 첫 번째와 두 번째 고양이'로 대상을 수상했던 윤이형 작가 또한 자신의 SNS에 원고지 29장 분량의 글을 올려 "부당함과 불공정함이 있었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돼 제가 받은 이상문학상을 돌려드리고 싶은데 방법이 없다"며 "이런 환경에서 더 이상 일하고 싶지 않다. 일할 수 없다. 작가를 그만둔다"며 절필을 선언했다. 이로써 '붕대감기'는 그녀의 마지막 단편소설집이 되었다.

'붕대감기'는 단순한 단편소설집과는 다른 매력이 있다. 각 단편들에 등장하는 인물과 사건들은 개별적으로 서술되어 표면적으로는 전혀 다른 이야기인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하나의 궤로 연결

된 중편(혹은 장편)소설로 읽힌다는 것이다.

이 소설에는 다양한 여성들이 등장한다. 불법촬영 동영상 피해자였던 친구를 보고도 도움을 주지 못했으며 현재는 미용사로 일하지만 페미니즘을 접한 이후 여성 손님들에게 외면을 꾸미라고 권하는 것이 코르셋을 강요하는 것처럼 느껴져 직업에 회의감을 느끼고 있는 해미, 어린 이집에 다니는 아들을 잠시 시부모 댁에 맡겼으나 시부모가 다니는 교회 사람들과 눈썹매를 타러 간 아들이 원인 모를 병을 얻게 되어 남편과 시부모가 워킹맘인 자신을 원망하는 것 같아 두려워하는 은정, 그리고 고등학교 시절 교련 시간에 서로의 머리에 붕대를 감는 연습을 하며 절친한 친구가 되었으나 한 명은 결혼을 하고 한 명은 비혼을 택하며 사이가 멀어진 진

경과 세연이 그 주인공이다.

이 넷은 아무 관련이 없어 보이지만 은정의 아들 서균의 친구 엄마가 진경이고 해미의 미용실에 방문하던 손님이 은정임을 통해 접점을 찾는다.

서로 다른 생각과 가치관을 가졌고 각자 다른 현실을 살고 있는 이들은 다른 만큼 서로 공통점을 찾는데 애를 먹고, 서로 이해하는데도 어려움을 겪는다. 절친이지만 세연의 눈에는 '남자 없이 못사는' 진경이 한심해 보이고, 진경은 '정치적 올바름'을 지나치게 추구하는 세연을 부담스럽게 생각한다는 점이 그러하다. '여성'이라는 하나의 큰 공통점으로도 연대하기 어려운 다양성이지만, 소설은 여성들이 겉으로는 보이지 않으나 끈질기게 연결되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들은 끝내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고, 내색하지 않지만 동시에 서로를 필요로 하며 알게 모르게 서로를 돕기도 한다.

붕대를 감는 연습을 하며 절친이 되었



소설가 윤이형. /연합뉴스

으나 서로의 가치관 때문에 떨어진 진경과 세연이 다시금 연락을 주고받으며 관계를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상처를 주면서도 서로 낸 상처가 아물도록 붕대를 감아주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이 아닐까. 코로나19로 만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사람들로 하여금 서로의 마음까지 멀어지게 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오지현 기자

www.okimscom.com

모두가 바라보는 **별**이 되도록!

별 하나, 그리고 넓은 들판... 이 그림을 자세히 보아 두셨다가, 언젠가 당신이 아프리카사막을 여행하실 때, 이와 똑같은 풍경이 있으면 꼭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때쯤이면, 당신과 당신의 회사는 이미 커다란 별이 되어 있겠군요.

오캄언커뮤니케이션이 당신과 함께 하니깐요.

Ok!m's Communication Co.,Ltd

「오캄언커뮤니케이션」은 광고기획 및 제작, 매체기획 및 구매, 온라인광고대행, 옥외광고, 프로모션, 마케팅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주)오캄언커뮤니케이션 |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197-7 에이스테크노타워2차 802호 T. 02)3445-3224, F. 02)3445-3216